

인쇄하기

인쇄하기 창닫기

VERITAS<sup>α</sup>

HOME &gt; 메인박스-좌(대입) &gt; 2022 대입개편

## ‘사탐봐서 의대 못 간다’ 21개대 2022수능 반영과목 공개..이과 수학/과학 선택과목 지정

대학 취합현황 8월 12월 추가공개

권수진 기자

승인 2019.04.30 15:12

호수 0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고려대를 비롯한 서울 상위9개사립대가 2022수능에서 자연계열 모집단위에 수학/과학 선택과목을 지정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9개사립대를 비롯한 20개대학의 2022수능 선택과목을 30일 공개했다. 해당대학은 대교협에 자료를 제출한 경남대 경희대 고려대 극동대 꽃동네대 루터대 배재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성결대 성균관대 수원가톨릭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천대 중앙대 청운대 청주교대 한국외대 한양대(ERICA)다. 교육부/대교협 자료상 한양대(서울)는 누락됐지만 한양대 취재 결과, 앞서 알려진 대로 나머지 상위8개대와 동일한 형태로 선택과목을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전형계획은 당초 3년예고제에 따라 내년 4월말까지 각 대학이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교육부는 지난달 전국 입학처장협의회 현장에서 4월말까지 2022정시 전형계획 일부를 발표할 것을 요청하면서 수능 선택과목만 우선적으로 공개된 상황이다. 전형별 인원, 전형방법 등의 내용은 당초 일정대로 내년 4월말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8월 1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나머지 대학들의 2022수능 선택과목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2022수능부터 문이과 구분이 명목상 폐지되긴 했지만 상위대 자연계열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위 ‘이과’과목으로 불리는 과목을 선택해야하게 됐다. 2022입시에서 문이과 통합은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모집단위에 따라 필요로 하는 이수과목에 차이가 있는 만큼 현장에서는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다.

이제 교육계의 시선은 서울대로 쏠린다. 상위9개대와 마찬가지로 자연계열 모집단위에 수학 또는 과학 선택과목을 지정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문이과 통합'이라는 2015개정교육과정의 취지를 두고 국립대학의 책무성 차원에서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를 비롯한 서울 상위9개 사립대가 2022수능에서 자연계열 모집단위에 수학/과학 선택과목을 지정했다. 사실상 문이과 통합이 무산된 셈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 <자연계열 기하/미적분, 과탐2과목 응시 지정 '주목'>

수능 선택과목을 공개한 21개교 중 자연계열 수학 선택과목을 지정한 곳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의 9개교다. 기하 또는 미적분을 택해야 한다. 교육부 자료 상 한양대가 누락됐으나, 한양대 취재 결과 나머지 대학과 동일하게 수학 선택과목을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외대의 경우 수학 선택과목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기하/미적분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탐구의 경우 자연계열에서 과탐2과목을 응시하도록 한 곳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천대 중앙대 한양대의 9개교다. 상위대학 중에서는 한국외대가 자연계열 지정과목을 따로 두지 않았다. 외대 입학관계자는 "공대에 지원할 경우에는 과탐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개념으로 연구 중에 있다. IT학과가 대부분이어서 인문학적 소양도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 지정을 따로 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반면 인문계열에서 수학 선택과목을 지정한 곳은 서울과기대가 유일하다. 확률과통계를 응시하도록 했다. 국어 과목을 지정한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현 고1이 치르는 2022수능의 핵심은 문이과 통합을 취지로 한 '공통+선택형' 구조다. 국어는 독서 문학을 공통과목으로 하고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중 택1하도록 했다. 수학은 수학 I 수학Ⅱ를 공통으로 하고 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와벡터 중 택1한다. 탐구는 계열구분을 폐지하고 사회/과학 전체 17개 과목 중 2개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문이과 상관없이 어떤 과목이든 선택할 수 있다 보니 대학 입장에서는 모집단위별 학문 특성에 맞지 않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소한의 과목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학문연



속성이 끊어진다는 지적이다. 전공과는 상관없이 수능에서 유리한 과목에 쏠릴 가능성이 커, 극단적으로는 사람을 응시해 의대에 진학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고교 입장에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선택과목을 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816개에 달해 현 고1의 고심이 컸다. 모든 수험생이 동일하게 치르는 공통형 과목을 제외하고, 과목별 선택형과목 개수를 살펴보면 국어2개(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수학3개(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탐구17과목(사탐9과목+과탐8과목)이다. 가능한 조합이 무려 816개에 이른다. 현행 수능에서는 탐구만 선택형으로 실시하다보니 사탐을 선택하는 경우 36개, 과탐을 선택하는 경우 28개조합이 가능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이다.

20개대학이 수능 지정 선택과목을 공개한 것은 이 같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교육부는 교과 선택을 두고 혼란에 빠진 고교 현장을 고려해 당초 2022전형계획 공개 시한인 내년 4월말보다 1년 앞서 정시 전형계획 일부를 공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선택과목을 공개한 21개대학 중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수험생의 선호도가 높은 상위9개대가 자연계열에 수학 선택과목을 지정함에 따라, 다른 상위권대학도 비슷한 안을 따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에 따라 문이과 구분 체제로 치르는 2021수능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 고2가 치르게 되는 2021수능은 수학에서 가/나형, 탐구에서 사/과탐 중 택1해 치르는 방식이다. 수학(가)형 출제범위는 수학 I 미적분 확률과통계, 수학(나)형은 수학 I 수학II 확률과통계다. (가)(나)형 공통으로 출제되는 수학 I 확률과통계를 제외하면 이과생들이 치르는 수(가)에서 미적분, 문과생들이 치르는 수(나)에서 수학II를 치르게 된다. 2021수능에서 기하는 출제범위에서 제외됐다.

인문계열에서는 따로 선택과목 제한이 없어 '이과'생이 인문계열에 교차지원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문과'생이 자연계열에 교차지원하기는 여전히 어렵게 됐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주요 대학의 지망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사탐 과목 선택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수학 선택에서도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어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문과, 이과의 수학/탐구 유형 선택이 유지된다"며 2015개정교육과정의 핵심 취지인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과는 현실적으로 엇박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선택과목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특정 과목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덕 소장은 "인문계 학생들과 자연계 중하위권 학생의 경우 수학에서 확률과통계, 탐구는 사탐2과목, 자연계 상위권 학생들은 수학은 미적분을 주로 선택하고, 탐구는 과탐2과목을 선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서울대 선택과목 방안 미정.. '고교생활 가이드북'으로 가늠>

서울대는 아직까지 선택과목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상위9개대와 마찬가지로 자연계열 모집단위에 수학/과학 선택과목을 지정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아직 서울대의 안이 나오지 않

은 상황에서, 현 고1은 서울대가 2018년 10월 공개한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고교생활 가이드북'을 통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지 가늠해볼 수 있다.

가이드북에 따르면 공대 기계항공공학부의 경우 '수학'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확률과통계' '기하'는 꼭 이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기하>는 꼭 공부하는 것이 좋다. 대학에서는 벡터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기본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새로운 교육과정의 13개의 과학 과목 중에 <통합과학> <물리학 I> <물리학 II>는 제대로 이수하는 것이 좋다. 이 중 <물리학 II>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물리 강의가 대학교 1학년 때 개설되기 때문에 <물리학 II>를 이수하지 못했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과목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 식이다.

#### <2022대입개편 국어/수학 공통+선택형 도입>

2022수능은 수학 가/나형 분리출제를 폐지하고 국어 수학 직탐에 공통+선택형 구조가 도입된다. 국어는 독서 문학을 공통과목으로 하고,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중 하나를 택해 응시한다. 수학은 문이과 구분을 폐지한다. 수학 I II가 공통이고, 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택한다. 사/과탐도 문이과/계열 구분 없이 2개과목을 택해 응시한다. 수학/과학계의 반발을 의식해 수학에서는 기하를 과학에서는 과II를 선택과목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2022수능의 대폭 변화는 2015개정교육과정의 도입에 발맞추기 위해서다. 2015개정교육과정이 '문이과통합'을 슬로건으로 내걸면서, 문이과를 망라해 어떤 과목이든 선택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수능 과목 변화도 불가피했다. 당초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첫 수능은 2021수능이었으나 수능 개편이 한 차례 유예되면서 2022수능부터 가/나형 분리 출제를 폐지하게 됐다.

현 고2가 치를 2021수능까지는 2009교육과정대로 실시된다. 출제범위에 변화가 생겼으나 여전히 문이과 분리형으로 치른다. 국어는 화법과작문 언어(언어와매체) 독서 문학이 출제범위다. 2015개정교육과정의 신설과목인 언어와매체에서 기존 수능의 문법에 해당하는 언어만 분리해 출제범위에 포함했다. 논란이 많았던 수학(가)는 '기하'를 제외하고 수학 I 미적분 확률과통계에서 출제한다. 반면 수학(나)는 2009교육과정의 미적분 II 단원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등을 다룬 수학II가 포함됐다. 수학 I 수학II 확률과통계에서 출제한다. 탐구는 계열별로 사회9과목/과학8과목/직업10과목 가운데 최대 2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 이전과 같다. 특히 출제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던 과학II 4과목은 출제범위에 그대로 포함됐다.

2020수능은 현행 2019수능과 동일하게 치른다.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출제하며 수학은 가/나형 중 선택하고 탐구는 사/과/직탐 중 한 가지를 응시하며 영역별로 최대 2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다. 출제범위도 변경사항이 없다. 국어는 화법과작문 독서와문법 문학 3개 과목이 출제범위다. 수학(가)는 미적분 II 확률과통계 기하와벡터, 수학(나)는 수학II 미적분 I 확률과통계를 출제범위로 한다.

2022수능 선택과목 지정 현황

영역	선택과목 지정여부	
	지정과목	해당대학
		경남대 경희대 고려대 극동대 꽃동네대 루터대 배재대



국어	지정X	서강대 서울과기대 성결대 성균관대 수원가톨릭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천대 중앙대 청운대 청주교대 한국외대 한양대 한양대(ERICA)
수학	인문	확률과통계 서울과기대
		지정X 경남대 경희대 고려대 극동대 꽃동네대 루터대 배재대 서강대 성결대 성균관대 수원가톨릭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천대 중앙대 청운대 청주교대 한국외대 한양대 한양대(ERICA)
	자연	기하 또는 미적분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지정X 경남대 극동대 꽃동네대 루터대 배재대 성결대 수원가톨릭대 인천대 청운대 청주교대 한국외대 한양대(ERICA)
탐구	인문	-
	자연	과탐2과목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천대 중앙대 한양대 한양대(ERICA)
	지정X	경남대 극동대 꽃동네대 루터대 배재대 서울과기대 성결대 수원가톨릭대 청운대 청주교대 한국외대

\* 자료=교육부/대학교협

\* 대학교협에 계획한 제출한 20개교(경남대 경희대 고려대 극동대 꽃동네대 루터대 배재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성결대 성균관대 수원가톨릭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천대 중앙대 청운대 청주교대 한국외대 한양대(ERICA))에  
더해 자료상 누락된 한양대 포함

2020~2022수능 출제범위

구분		고1(2022)	구분	고3(2020)	고2(2021)
		출제범위			
국어	공통	독서 문학	국어	화법과작문 독서와문법 문학	화법과작문 언어(언어와매체) 독서 문학
	선택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중 택1			
수학	공통	수학 I 수학 II	수학 (택1)	가형 미적분 II 확률과통계 기하와벡터	수학 I 미적분 확률과통계
	선택	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와벡터 중 택1		나형 수학 II 미적분 I 확률과통계	수학 I 수학 II 확률과통계
탐구 (계열 구분 폐지)	사회/ 과학 (택2)	생활과윤리 윤리와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정치 경제 사회문화 9개 과목, 물리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물리 II 화학 II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I 8개 과목	탐구 (택1)	사회	생활과윤리 윤리와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정치 경제 사회문화 9개 과목 중 최대 택2
	공통	성공적인직업생활		과학	물리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물리 II 화학 II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I 8개 과목 중 최대 택 2
직업	선택	농업기초기술 공업일반 상업경제 수산해운산업의기초 인간발달 5개 과목 중 택1	직업		농업이해 농업기초기술 공업일반 기초제도 상업경제 회계원리 해양의이해 수산해운산업기초 인간발달 생활서비스산업의이해 10개 과목 중 최대 택 2
영어		영어 I 영어 II	영어 I 영어 II		
한국사 (필수)		한국사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		독일어 I 프랑스어 I 스페인어 I 중국어 I 일본어 I 러시아어 I 아랍어 I 베트남어 I 한문 I 9개 과목 중 택 1	제2외국어/ 한문		
			독일어 I 프랑스어 I 스페인어 I 중국어 I 일본어 I 러시아어 I 아랍어 I 베트남어 I 한문 I 9개 과목 중 택 1		

\*노란색 표시: 절대평가 적용과목

권수진 기자 ks@veritas-a.com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